



부안군의회 박병래 의장 · 김두레 의원
부안지역 일간지 출입기자단 공로패 수상

부안군 일간지 출입기자단이 12일 부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박병래 의장과 김두레 의원에게 의정 발전 공로에 대해 공로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로패 수여는 두 의원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지역 언론과의 건설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 부안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것.

특히 박병래 의장은 책임감 있는 의회 운영을 바탕으로 언론과의 소통하며,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김두레 의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자치행정위원으로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병래 의장은 소감으로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열린 의정과 책임 있는 의회 운영으로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부안군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두레 의원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농협, 2026년 조합원 자녀 장학금 전달

고창농협(조합장 유덕근)이 지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 양성과 조합원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톡 큰 지원에 나섰다.

고창농협은 지난 11일, 2026년 고창농협 조합원 및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유덕근 조합장, 이기정 지부장, 임직원을 비롯하여, 장학금 수혜 학생 및 학부모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장학금 전달 규모는 총 3180만원으로, 대학생 21명(각 100만원)과 중학교 입학에 앞둔 학생 36명(각 30만원) 등 총 57명에게 전달됐다.

특히 고창농협의 장학 사업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올해까지 장학금을 받은 인원은 1,300명에 달하며, 누적 지원 금액은 7억 8860만 원을 기록하며 지역 사회 인재 육성의 산실로 자리매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서군산농협, 장학금 수여식 · 결산총회 개최

서군산농협(조합장 김기수)은 최근 조합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12일에는 제65기 결산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에서 총 18명의 조합원 자녀를 선발하여 각 100만원씩 총 1,800만원을 수여했다.

또한, 12일 제65기 결산총회를 개최해 2025년도 결산 결과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 임직원이 헌연일제로 사업추진한 결과 9억1,800만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했고, 출자배당 4.5%와 이용과배당을 포함해 총 4억9,100만원을 배당했으며, 사업준비금 2억6,100만원을 적립해 재무 안정성을 더욱 견고히 다졌다.

/군산=김만호 기자

전주시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 이웃사랑 실천

전주시 중화산2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김주표)와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최영자)은 12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라면 20박스와 백미 30포를 중화산2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나눔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하고자 두 단체가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물품은 중화산2동 관내 저소득 가구, 독거노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 등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중화산2동주민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해바라기봉사단은 평소 취약계층 지원, 지역 환경 정비, 주민 화합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와 나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교정 직원의 안전, 곧 교정의 출발점”

김만현 정읍교도소장, 수용자 과밀 수용 해소 · 작업 공간 확충에 중점

지난해 12월 1일 부임한 김만현 정읍교도소장은 교정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교정 직원의 안전 확보'를 제시했다.

교정의 본질이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일인 만큼, 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정 직원들이 안전하게 공지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김 소장은 "일부 수용자들의 폭력 행위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반복되면 직원들이 위축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교정 질서를 흔들고 다수 수용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형 집행이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수용자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교도소의 가장 큰 현안은 과밀수용과 작업공간 부족 문제다. 현재 수용인원은 수용정원을 초과해서 수용률이 130%를 넘는 상황이다.

정읍교도소는 미결수용자는 몇 명 안 되고 기결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용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시설 구조상 독거실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혼자실이 부족해 혼자실 기준 수용률은 150%를 상회한다. 이로 인해 혼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입실 거부 사례와 징벌 인원 증가로 이어지는 등 수용 관리 부담이 가중되고 교정 직원들의 수용 관리 피로도가 대단히 높다.

김 소장은 "사람은 장기간 활동 없이 지내면 정신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수용자들이 작업에 참여해 일정한 활동과 교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작업공간이 부족해 취업을 희망하는 수형자 모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작업 계약 인원보다 많은 인원을 배치하려 해도 공간이 협소하고, 외부 기업 유치 또한 쉽지 않다. 그 결과 상당수가 거실 작업에 머물고 있다.

김 소장은 "교도 작업은 단순히 공임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이라며 "가능한 많은 인원이 작업에 참여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공장 확충과 수용동 증축 등 시설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행히 정읍교도소는 시설내 터가 넓어 공간을 지을 부지는 충분하나 건물 신축에 막대한 예산 등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귀띔했다.

또한, 정읍교도소는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교도소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교정위원들이 수용자 교화 활동 지원에 참여하고, 정읍교도소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랑의 손잡기' 기금을 통해 지역학도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매달 지원금을 전달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실천은 교정기관이 단순한 수용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 호흡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의미를 더하고 있다.

김 소장은 "교정은 결코 답장 안에서만 완성되는 일이 아니다"라며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교정의 실질적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10만호 기자



순창군의회, 순창우체국 찾아 집배원 격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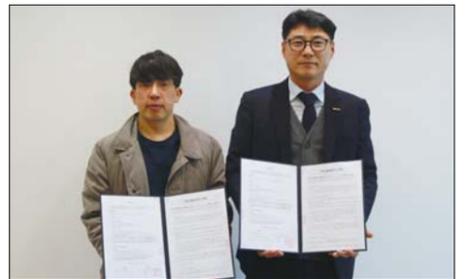
순창군의회(의장 손중석)는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1일 순창우체국을 방문해 명절 선물로 가득찬 물류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근무하고 있는 집배원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설 명절을 앞두고 우편물 분류와 배송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우체국 창구 직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며, 군민들이 우편과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손중석 의장은 "순창군의 밤이 되어 밤낮없이 물류 배송에 힘써주시는 집배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이 모두에게 따뜻한 정겨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양희 기자



건협 전북지부, 전주효자시니어클럽과 협약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본부장 엄진영, 이하 건협 전북지부)는 12일 전주효자시니어클럽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6년 2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전주효자시니어클럽 소속 시니어들이 건협 전북지부에서 근무하며 이웃관을 대상으로 전자문진 작성 지원, 키오스크 수납 안내, 건강검진 절차 안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건협 전북지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니어들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는 보다 편리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엄진영 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시니어 일자리 창출과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건협 전북지부는 건강검진을 비롯해 보건교육, 건강환경 조성, 복지 사각지대 후援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힘쓰고 있다.

/오성근 기자

서신동 새마을부녀회, 설 명절 맞아 떡국 봉사활동 전개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희숙)의 활약이 따뜻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 화제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회장 박희숙) 회원 20여 명은 정성껏 준비한 명절 음식과 밀반찬을 들고 지역의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가정을 찾으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는 효자장터타운(대포아사 유명식), 전광라이온스클럽(회장 신보룡)과 협약을 맺고 올해 첫 '서신동 찬찬찬! 밀반찬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두 기관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매일 30만원 상당의 신선한 식재료를 후원하기로 약속하며 지역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날 부녀회원 20여명은 이른 아침부터 동 사무실 봉사 공간에 모여 떡국과 부침개, 3종 밀반찬을 정성껏 마련했다. 음식 하나하나에는 "따뜻한 설을 보내시라"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완성된 음식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과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 25세대에 직접 전달했다. 단순한 배달에 그치지 않고 안부를 묻고 손을 맞잡으며 정겨운 인사를 나누는 시간도 이어졌다.

음식을 건네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이 되면 더 외로웠는데 이렇게 찾아와 주니 큰 힘이 된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조용하던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번졌다.

서신동 새마을부녀회 박희숙 회장은 "회원들이 마음을 모아 준비한 음식이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며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풍요롭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서신동장은 "지속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전광라이온스클럽과 효자장터타운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매일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서신동 새마을부녀회들의 노고에 있기에 서신동이 더욱 따뜻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약계층이 외롭지 않은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10만호 기자

동충동 지사협,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 추진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미라, 조태봉)는 지난 12일, 우리마을돌봄단과 협력해 관내 사회적 고립가구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명절맞이 '행복 꾸러미'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과 사회적 고립 가구가 명절 기간 느낄 수 있는 소외감과 고립감을 완화하고,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지역사회 안에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이날 동충동과 우리마을돌봄단은 '1일 1가구 소통행진'을 통해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교류해 온 사회적 고립가구 30가정을 직접 방문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금동장학회, 지역 우수학생들에게 장학금 전달

남원시 금동 관계지는 관내 금동장학회(회장 표태수)에서 12일 지역 우수학생 4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지역 인재를 발굴하고 미래세대의 성장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학회 선발 기준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최종 선발했으며, 금동장학회는 지난 1989년 금동 주민 이기씨 모친상 조의금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돼 달라는 뜻에 따라 설립된 주민 장학회로, 설립 이후 현재까지 총 134명에게 4,7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 육성에 기여해 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부안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식 · 임시총회

부안군 위도면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위도면 주민자치센터 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 및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2명(고문 2명, 위원 20명)으로 구성, 최만 위 원장과 김경배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최만 주민자치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용철 위도면장은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사랑의 떡국 나눔

남원 동부노인복지관에서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2월 10일 경로수당에서 '사랑의 떡국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 40여 명에게 따뜻한 떡국을 대접했다.

이번 행사는 남원시 행정동우회(회장 이광우)가 고향사랑 기부를 통해 받은 담례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자 고기류와 채소류 등 식재료를 후원하면서 마련됐다.

또한 행정동우회는 지역의 한 기초생활수급 어르신에게 백미 50kg을 기부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는 등 넉넉하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이웃을 먼저 생각한 자발적인 나눔이 지역사회에 감동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NH농협 진안군지부, 설 명절 맞이 이웃사랑 나눔

NH농협 진안군지부(지부장 한정호)는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와 함께 12일, 도·농상생 우리농산물 소비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내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사인머스켓 600만원 상당을 진안군에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NH농협 진안군지부와 NH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에서 사인머스켓(4kg) 200박스를 마련하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으며, 해당 물품은 관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시, 설 맞이 식품안전관리 캠페인

김제시 위생관리팀은 12일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전통시장 일원에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품안전관리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김제시민들이 식중독 없는 건강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에 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세수용품 등 식재료 장보기 요령, △명절음식 조리 및 보관 요령, △성상모집, 귀경길, 연휴 나들이 식중독 예방 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고 자체 제작한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